

보도일시	2025. 05. 27. (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한국환경기술사회

과학기술 기반 정책 협약 체결

- 위성곤 위원장 “실행력 있는 기후정책, 기술 기반 협력이 해답”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6일(월), 한국환경기술사회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의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기후위 위성곤 위원장, 염태영 수석부위원장과 한국환경기술사회 홍순명 회장을 비롯해 수질·대기·자연환경·기후기술 분야 전문기술사들이 참석해, ▲헌법상 환경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환경기술사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실효적 기술기반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 및 ESG기반 정책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삶의 방식 전반을 바꾸는 과제”라며,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실효성 있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기술에 기반한 실행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수와 폭염, 산불과 가뭄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환경기술사는 현장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제도 개선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기술사의 전문성이 정책과 연결되고, 국민의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협약에 앞서 한국환경기술사회 기후위기대응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를 과학적으로 직시하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은 이제 말이 아닌 실행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실천 중심의 기후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사진> 2025. 05. 26.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한국환경기술사회 정책협약식